

論文

항공관련학과 전공자의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배신영*

The Effects of Recognized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Students of Majoring in Avia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tress-

Shin-Young Bae*

ABSTRACT

In this study, it examined whether recognized career barriers among students of majoring in aviation affected career str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stress moderated the impact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level. For this purpose, it conducted a survey of aviation-related college students in C university from Sep. 21th. 2015 to Oct. 8th. 2015. A total of 22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statistical package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Findings indicated that career barriers partly influenced the career str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Also, career stress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level. Lastly, career stress moderated the impact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implication of this paper would be used as a fundamental material to guide for career direction to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Key Words : Career Barriers(진로장벽), Career Decision Level(진로결정수준), Career Stress(진로스트레스), Students of Majoring in Aviation(항공관련 전공자)

1. 서 론

오늘날의 대학은 학문과 연구의 기능 이외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직업인의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과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및 대학 내 관계자들은 다양한 조력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에게 진로선택이란 경제적 자립, 자아실현의 방편, 더 나아가 삶의 질까지도 결정해주는 중대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1].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높은 청년실업률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특정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문제는 가장 큰 고민이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2].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30대 청년실업률은 10.9%에 이르고[3] 졸업 후에도 미취업이 되는 상황은 더 이상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의되고 있는 진로장벽[4-6]과 진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상태인 진로

2015년 11월 10일 접수 ~ 2015년 12월 20일 심사완료
게재 확정일 (2015년 12월 20일)

* 초당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연락처, E-mail : baesy@cdu.ac.kr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스트레스[1]는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서 연구되어왔다. 특히 진로설계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정도인 진로결정수준[7-8]은 진로목표에 대한 결정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로 진로상담 시 학생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과 함께 진로관련 변수인 진로장벽 및 진로스트레스의 관계를 규명해내는 일은 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항공산업분야의 급성장은 항공전문인력을 양성해내는 대학 내의 항공관련 학과의 증가를 가져왔다. 전공별로 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서비스, 항공우주공학, 항공교통 등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학과들이 국내 70 여개 이상의 대학에서 운영 중에 있다[9]. 항공관련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항공전문가로 진로를 결정하고 입학한 경우가 많지만 고용불안이라는 사회적 환경과 일자리가 극히 제한된 항공취업시장의 구조는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항공관련학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규명해낸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관련학과 전공자들의 진로결정 및 선택에 있어서 내적·외적으로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을 탐색하여 실제 학교현장에서 진로지도 및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관련학과 전공자의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둘째,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셋째,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항공관련학과 전공자들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장벽

진로장벽이란 직업이나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그 진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음으로서 진로발달을 어

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설명되어진다[4-6].

O'Leary[10]는 진로장벽의 요인을 6가지 내적 변인(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역할갈등, 성공에 대한 공포, 직업적 승진에 따른 결과, 결과기대와 관련된 원인)과 4가지 외적 장애(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관리적 여성에 대한 태도, 여성의 능력에 대한 태도, 남성관리 모델의 유형)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Swanson & Daniels[4]은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검사를 개발하여 13개의 요인(성차별, 자신감의 부족, 여러 가지 역할 간의 갈등, 자녀와 진로간의 갈등, 인종차별, 부적절한 준비, 비 전통적인 진로선택에 대한 반대, 의사결정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불만, 노동시장의 제약, 중요한 타인들의 반대, 신체장애 및 건강상의 문제, 사회화의 어려움)을 도출해냈다.

손은령[11]은 Swanson & Daniels[4]가 개발한 진로장벽검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로장벽검사를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여자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요인을 7가지(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특성의 부족,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 미결정 및 직업준비부족, 노동시장 및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전망,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로 도출하였다. 이는 당시 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보다 어려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여대생의 진로장벽요인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전체 대학생의 진로장벽요인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김은영[12]은 우리나라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개발하였다. 이 진로탐색장애검사는 45개의 척도를 바탕으로 총 9개의 요인(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진로장벽요인임과 동시에 남녀대학생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되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2.2 진로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를 말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를 진로스트레스라고 한다[1].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것이며[13] 경쟁적인 입

시위주의 교육환경 및 불확실한 사회적 요소 등으로 인해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3년 통계청 자료[3]에 따르면 20~30대 청년실업률은 10.9%에 다다르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취업이 잘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진로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이전에 사회의 관심 속에서 연구되고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Brown & Birley[14]는 진로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정신분열, 우울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Hanisch[15] 역시 적개심,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이상증세는 물론 고통이 가중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진로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 및 신체적 건강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1, 16]. 특히 진로스트레스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대학 신입생 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장기적인 스트레스로서[17] 대학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이 진로발달로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7].

진로결정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이분법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의 양분화된 개념으로 진로결정을 인식하였다[18]. 하지만 Holland & Holland[19]는 진로결정을 연속선상의 차원으로 바라보고 진로결정의 수준을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로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연속선상의 단일차원 개념을 반영한 진로결정수준 척도인 VCMD(Vocation Decision Making Difficulty Scale)를 개발하였다.

진로결정은 개인의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라는 자아실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20]. 진로결정수준이 미숙할 경우 이는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부적응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21]. 따라서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도움을 제공할 필

요가 있겠다. 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합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2.4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본 연구는 항공관련학과 전공자의 진로관련 변인인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의 이론적 모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인 진로장벽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2]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스트레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을 많이 지각할수록 취업과 관련된 긴장 및 불안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진로장벽요인은 진로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Astin[22]은 외부적 장벽이나 환경적 장벽에 대한 지각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의 수준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akurako[23]는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미래의 직업에 대한 낙관성이 낮아지며 직업적 자신감도 낮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을 가로막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24-25]인은 진로결정수준에 부적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의 연구들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Shuttleworth[26]와 Swanson, Daniels & Tokar[27]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로장벽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즉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인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현림 외[1], 장순웅 외[28], 전찬열[2]의 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스트레스의 직접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의 직접적인 효과 역시 여러 연구[21, 29-30]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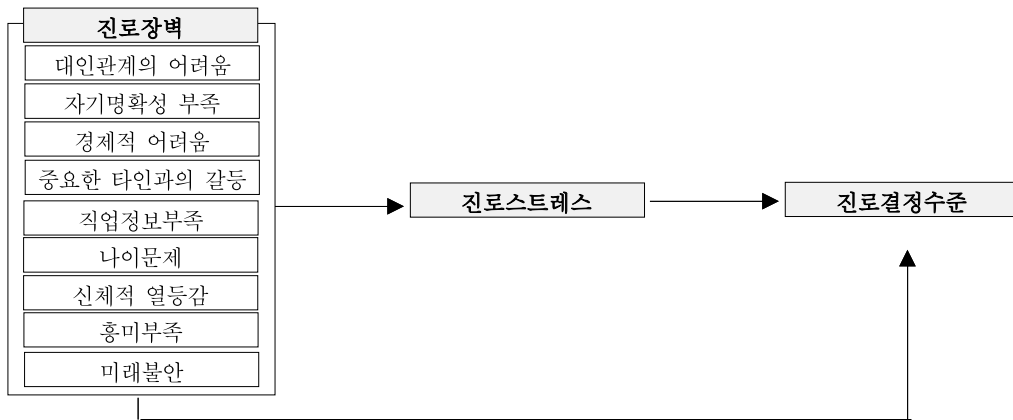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따라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은 단순한 선행 관계가 아닌 두 변인을 매개해줄 수 있는 진로 스트레스가 이 두 변인의 영향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항공관련학과 전공자들에게 적용하여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진로장벽과 진로스트레스의 관계[1, 2, 28],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22-25],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21, 29-30]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H₁ : 진로장벽은 진로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₂ :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₃ :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₄ :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2 측정도구

3.2.1 진로장벽

Swanson & Daniels[4], Swanson & Woitke[5], 손은령[6]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장벽이란 “진로계획 및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는 내적, 외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김은영[12]이 개발한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활용하여 총 9개의 요인(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을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2.2 진로스트레스

이현림 외[1]의 연구를 토대로 진로스트레스란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로 정의하고 박선희·박현주[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항공관련학과 전공자의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한다.

3.2.3 진로결정수준

김중운·박성실[7]과 김봉환·김계현[8]의 정의를 토대로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진로설계와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박선희·박현주[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3 자료수집 방법

항공관련학과 전공자의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C 대학의 항공계열 대학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법 식 응답을 통해 자료를 획득하였다. 총 2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247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225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3.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선형회귀분석 및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검증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최소화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방식을 이용하였으며 회전방식은 직각

회전(va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 결정은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만 선택하였으며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는 그 값이 0.4 이상인 경우를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4.2.1 진로장벽의 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Table 2는 진로장벽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이다. 요인분석결과, 설명된 총분산은 84.813%로 나타났고 총 9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신뢰도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진로스트레스의 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Table 3은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이다. 요인분석결과, 설명된 총분산은 68.740%로 나타났고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신뢰도는 .954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s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자	146	64.9
	여자	79	35.1
연령	20세 이하	72	32.0
	21세	56	24.9
	22세	43	19.1
	23세	37	16.4
	24세 이상	17	7.6
학년	1학년	79	35.1
	2학년	58	25.8
	3학년	51	22.7
	4학년	37	16.4
전공	항공운항	64	28.4
	항공정비	81	36.0
	항공서비스	80	35.6
전체		225	100.0

Table 2.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 career barriers

구분	성분								
	자기 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미래 불안	중요한 타인과 의 갈등	나이 문제	흥미 부족	직업 정보 부족	대인 관계의 어려움	신체적 열등감
6.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움	.830	.154	.195	.106	.075	.109	.156	.166	.152
5.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움	.818	.143	.100	.144	.085	.014	.176	.136	.129
7.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함	.693	.219	.230	.257	.119	.185	.112	.228	.184
8. 결정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음	.655	.170	.276	.217	.066	.298	.050	.190	.214
9.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함	.602	.218	.166	.291	.139	.278	.262	.235	.136
10. 성적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임	.569	.129	.267	.218	.143	.228	.201	.202	.035
14. 돈을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함	.133	.835	.247	.062	.172	.007	.137	.084	.070
12.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임	.228	.807	.069	.246	.153	.206	.133	.203	.146
13.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음	.164	.804	.095	.271	.173	.198	.179	.181	.123
11.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함	.154	.793	.138	.271	.153	.200	.209	.162	.117
15. 진로 선택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193	.651	.261	.249	.222	.140	.126	.133	.070
40.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	.196	.150	.809	.091	.120	.120	.169	.119	.231
39.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	.205	.124	.804	.072	.095	.168	.164	.159	.235
37. 경기불황이 취업에 영향을 줌	.203	.156	.748	.258	.093	.156	.243	.182	.171
36.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취업에 영향을 줌	.229	.229	.672	.317	.111	.188	.155	.143	.111
38. 시대흐름의 변화는 진로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함	.222	.260	.669	.296	.138	.220	.250	.197	.144
18. 부모님의 반대는 진로결정을 방해	.268	.249	.201	.750	.097	.161	.160	.146	.120
17.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임	.223	.207	.146	.731	.212	.252	.214	.189	.186
16.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은 진로에 영향을 줌	.208	.202	.180	.727	.179	.254	.198	.207	.167
19. 중요한 사람의 반대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줌	.220	.301	.231	.722	.115	.200	.169	.149	.140
20. 부모님 이성친구나 나의 진로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됨	.195	.319	.237	.661	.132	.217	.243	.225	.179
27. 나이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남들에게 뒤쳐질까봐 걱정됨	.061	.105	.091	.112	.887	.079	.071	.129	.081
28. 나이 때문에 진로 계획과 행동에 지장을 받을 것임	.126	.149	.047	.154	.853	.110	.132	.154	.188
25.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함	.060	.199	.220	.065	.818	.098	.075	-.015	.084
26.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함.	.131	.176	.016	.117	.805	.216	.041	.231	.082
34.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임	.145	.154	.272	.209	.158	.781	.127	.102	.095
32.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 같음	.203	.206	.157	.247	.194	.764	.225	.170	.188
33.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점차 지루해 질 것임	.219	.210	.221	.224	.208	.749	.258	.195	.149
35. 흥미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음	.235	.157	.135	.287	.166	.685	.337	.243	.134
22.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	.202	.240	.298	.167	.070	.219	.765	.127	.131
21.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름	.283	.220	.232	.216	.083	.218	.722	.146	.182
23.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어려움	.209	.254	.242	.330	.135	.214	.683	.175	.173
24. 직업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름	.180	.164	.223	.211	.180	.240	.683	.251	.089
3. 직장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됨	.291	.226	.241	.233	.211	.160	.192	.743	.165
1.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305	.217	.212	.206	.191	.220	.213	.735	.145
4.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어려울 것임	.310	.222	.214	.275	.210	.192	.204	.721	.143

2. 직장생활시 일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더 클 것임	.313	.256	.234	.211	.206	.204	.166	.709	.195
31.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낌	.212	.191	.301	.170	.190	.179	.158	.123	.784
30. 신체적인 열등감이 직업선택이나 계획에 영향을 줌	.249	.182	.289	.243	.196	.133	.166	.157	.767
29.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신체적 조건이 나쁨	.231	.099	.276	.201	.184	.171	.156	.210	.760
고유값	4.520	4.481	4.331	4.267	3.711	3.526	3.250	3.222	2.616
분산설명(%)	11.301	11.203	10.829	10.668	9.278	8.814	8.126	8.055	6.539
누적설명(%)	11.301	22.504	33.332	44.001	53.279	62.093	70.219	78.274	84.813
신뢰도	.925	.947	.942	.953	.919	.951	.935	.973	.955

KMO = 0.948, Bartlett's test결과 $\chi^2=11001.785$ (df=780, Sig.=0.000)

Table 3.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 career stress

구분	성분
	진로스트레스
4.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몰라서 답답함	.881
3. 졸업 후의 확실한 진로를 결정 못해서 고민임	.878
8. 진로나 취업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역부족, 무력감을 느낌	.861
9. 취업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몰라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음	.860
7. 내 전공과 졸업 후 활동하고 싶은 분야가 서로 달라서 고민임	.859
10. 전공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을지 진출의 기회가 적어 걱정임	.842
5. 취업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함	.832
11. 내가 생각하는 진로와 부모님의 생각이 달라 스트레스를 받음	.823
6. 하고 싶은 일을 해낼 만한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787
2. 취직을 해야겠는데 학점 때문에 걱정임	.784
1.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임	.696
고유값	7.561
분산설명(%)	68.740
누적설명(%)	68.740
신뢰도	.954

KMO = 0.939, Bartlett's test결과 $\chi^2=2252.465$ (df=55, Sig.=0.000)

Table 4.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 career decision level

구분	성분
	진로결정수준
4. 진로추구에 대한 불가능을 느끼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함	.906
7.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음	.903
2. 진로선택에 대한 경험부족, 불충분한 정보로 혼란스러움	.893
8. 관심분야, 흥미, 진로가능성의 관계를 잘 모르겠음	.892
6. 전공분야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음	.890
3. 진로선택에 관한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결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싶음	.882
5. 진로선택의 부담으로 무엇이든 빨리 결정하고 싶음.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검사를 받기 원함	.872
9. 진로결정을 했지만 수행방법이 확실하지 않음. 또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음	.847
1. 진로목표설정하는 불가능하며 대안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음	.818
11.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함	.737
10. 진로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들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함	.685
고유값	7.957
분산설명(%)	72.337
누적설명(%)	72.337
신뢰도	.961

KMO = 0.954, Bartlett's test결과 $\chi^2=2486.967$ (df=55, Sig.=0.000)

4.2.3 진로결정수준의 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Table 4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이다. 요인분석결과, 설명된 총분산은 72.337%로 나타났고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신뢰도는 .96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4.3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

Table 5는 각 변수 간 상관관계 검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대인관계의 어려움($r=.759, p<.001$), 자기명확성 부족($r=.761, p<.001$), 경제적 어려움($r=.638, p<.00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r=.755, p<.001$), 직업정보부족($r=.782, p<.001$), 나이문제($r=.560, p<.001$), 신체적 열등감($r=.675, p<.001$), 흥미부족($r=.744, p<.001$), 미래불안($r=.791, p<.001$)은 진로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¹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대인관계의 어려움($r=-.755, p<.001$), 자기명확성 부족($r=-.738, p<.001$), 경제적 어려움($r=-.653, p<.00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r=-.811, p<.001$), 직업정보부족($r=-.785, p<.001$), 나이문제($r=-.506, p<.001$), 신체적 열등감($r=-.676, p<.001$), 흥미부족($r=-.793, p<.001$), 미래불안($r=-.733, p<.001$)은 진로결정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²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진로스트레스($r=-.894, p<.001$)는 진로결정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³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가설의 검증

4.4.1 진로장벽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able 6은 진로장벽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및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보았으나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1.0을 넘지 않았으며 VIF값은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83.8%이고, F값은 123.406($p<.001$)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독립변수별로는 미래불안,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나이문제, 흥미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진로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열등감은 진로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4.2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Table 7은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및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보았으나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1.0을 넘지 않았으며 VIF값은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83.8%이고 F값은 123.406($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별로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흥미부족, 직업정보부족, 미래불안,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이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⁵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4.3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의 영향

Table 8은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79.9%이고,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84.715, p<.001$). 독립변수로서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⁶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

Table 9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5. The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구분	M±SD	진로장벽									10	11
		1	2	3	4	5	6	7	8	9		
1. 대인관계의 어려움	2.29±1.189	1										
2. 자기명확성 부족	2.61±.929	.723***	1									
3. 경제적 어려움	2.73±1.158	.621***	.579***	1								
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10±1.041	.689***	.676***	.672***	1							
5. 직업정보부족	2.52±1.056	.662***	.651***	.609***	.691***	1						
6. 나이문제	2.05±1.011	.493***	.382***	.470***	.441***	.392***	1					
7. 신체적 열등감	2.25±1.183	.612***	.618***	.510***	.615***	.587***	.452***	1				
8. 흥미부족	2.18±1.056	.651***	.633***	.570***	.695***	.695***	.466***	.572***	1			
9. 미래불안	2.83±1.199	.642***	.650***	.563***	.648***	.677***	.385***	.667***	.615***	1		
10. 진로스트레스	2.79±1.055	.759***	.761***	.638***	.755***	.782***	.560***	.675***	.744***	.791***	1	
11. 진로결정수준	3.43±1.081	-.755***	-.738***	-.653***	-.811***	-.785***	-.506***	-.676***	-.793***	-.733***	-.894***	1

***p<.001

Table 6.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stress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다중공선성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068	.099		.686	.493		
대인관계의 어려움	.086	.042	.097	2.072*	.039	.342	2.927
자기명확성 부족	.205	.051	.181	3.990***	.000	.368	2.714
경제적 어려움	-.024	.037	-.026	-.640	.523	.462	2.16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05	.049	.103	2.157*	.032	.329	3.037
직업정보부족	.209	.046	.210	4.584***	.000	.361	2.772
나이문제	.172	.035	.165	4.915***	.000	.669	1.494
신체적 열등감	.004	.037	.004	.101	.919	.449	2.227
흥미부족	.110	.044	.110	2.500*	.013	.389	2.574
미래불안	.249	.039	.283	6.423***	.000	.389	2.573

R²=0.838, Adj. R²=0.831, F-value=123.406***, p=.000

*p<.05, ***p<.001

Table 7.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level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다중공선성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6.011	.102		58.645	.000		
대인관계의 어려움	-.093	.043	-.103	-2.155*	.032	.342	2.927
자기명확성 부족	-.110	.053	-.095	-2.059*	.041	.368	2.714
경제적 어려움	.001	.038	.001	.018	.986	.462	2.16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62	.050	-.252	-5.191***	.000	.329	3.037
직업정보부족	-.192	.047	-.188	-4.047***	.000	.361	2.772
나이문제	-.061	.036	-.057	-1.681	.094	.669	1.494
신체적 열등감	-.050	.038	-.055	-1.314	.190	.449	2.227
흥미부족	-.240	.046	-.234	-5.232***	.000	.389	2.574
미래불안	-.102	.040	-.113	-2.538*	.012	.389	2.573

R²=0.833, Adj. R²=0.826, F-value=119.262***, p=.000

*p<.05, ***p<.001

Table 8. The influence of career stress on career decision level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984	.092		65.228	.000
진로스트레스	-.916	.031	-.894	-29.744 ^{***}	.000

$R^2=0.799$, Adj. $R^2=0.798$, F-value=884.715^{***}, $p<.000$

^{***} $p<.001$

Table 9.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tress at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level

독립/매개/종속	매개효과 검정단계	β	t	p	R ²	채택유무
대인관계의 어려움/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1단계	.759	17.418 ^{***}	.000	.576	부분매개
	2단계	-.755	-17.212 ^{***}	.000	.571	
	3단계(독립)	-.181	-4.065 ^{**}	.000	.813	
	3단계(매개)	-.756	-16.937 ^{***}	.000		
자기명확성 부족/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1단계	.761	17.543 ^{***}	.000	.580	부분매개
	2단계	-.738	-16.346 ^{***}	.000	.545	
	3단계(독립)	-.138	-3.020 ^{**}	.003	.807	
	3단계(매개)	-.789	-17.328 ^{***}	.000		
경제적 어려움/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1단계	.638	12.369 ^{***}	.000	.407	부분매개
	2단계	-.653	-12.888 ^{***}	.000	.427	
	3단계(독립)	-.140	-3.700 ^{***}	.000	.810	
	3단계(매개)	-.804	-21.190 ^{***}	.000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1단계	.755	17.200 ^{***}	.000	.570	부분매개
	2단계	-.811	-20.688 ^{***}	.000	.657	
	3단계(독립)	-.316	-7.769 ^{***}	.000	.842	
	3단계(매개)	-.655	-16.076 ^{***}	.000		
직업정보부족/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1단계	.782	18.765 ^{***}	.000	.612	부분매개
	2단계	-.785	-18.910 ^{***}	.000	.616	
	3단계(독립)	-.221	-4.790 ^{***}	.000	.818	
	3단계(매개)	-.721	-15.663 ^{***}	.000		
나이문제/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1단계	.560	10.088 ^{***}	.000	.313	완전매개
	2단계	-.506	-8.758 ^{***}	.000	.256	
	3단계(독립)	-.008	-.225	.822	.799	
	3단계(매개)	-.889	-24.468 ^{***}	.000		
신체적 열등감/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1단계	.675	13.663 ^{***}	.000	.456	부분매개
	2단계	-.676	-13.693 ^{***}	.000	.457	
	3단계(독립)	-.133	-3.348 ^{**}	.001	.808	
	3단계(매개)	-.804	-20.181 ^{***}	.000		
흥미부족/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1단계	.744	16.618 ^{***}	.000	.553	부분매개
	2단계	-.793	-19.465 ^{***}	.000	.630	
	3단계(독립)	-.288	-7.078 ^{***}	.000	.836	
	3단계(매개)	-.679	-16.696 ^{***}	.000		
미래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	1단계	.791	19.309 ^{***}	.000	.626	완전매개
	2단계	-.733	-16.093 ^{***}	.000	.537	
	3단계(독립)	-.070	-1.422	.156	.801	
	3단계(매개)	-.839	-17.113 ^{***}	.000		

주) 1단계는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2단계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3단계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의 회귀 분석 결과임., ^{**} $p<.01$, ^{***} $p<.001$

분석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은 1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 매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2단계에서도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단계 매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3단계 매개조건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독립변수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면서 2단계 회귀계수에 비해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진로스트레스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나이문제, 미래불안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진로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스트레스는 나이문제, 미래불안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항공관련학과 전공자의 지각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및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미래불안,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나이문제, 흥미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진로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해 진로장벽의 요인을 낮추어줄 수 있는 방안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열등감은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항공관련학과 대학생은 입학 시 항공종사원 규정에 맞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신체적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항공운항학과와 같은 경우 학업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상당부분 요구되어짐을 입학 전 미리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항공관련학과 전공자의 진로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항공관련

학과 전공자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진로상담 및 지도 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래불안, 직업정보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흥미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로장벽의 지각수준을 낮추어줘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열등감 그리고 나이문제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열등감은 항공관련학과 전공자의 특수성에 기인함으로 판단되며 나이문제 역시 표본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20세~23세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진로스트레스 감소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면서 2단계 회귀계수에 비해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진로스트레스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분매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인 나이문제, 미래불안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진로스트레스도 유의미하게 나타나 완전매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가 단순한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진로스트레스라는 매개변수에 의한 영향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장벽은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진로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결정 상태인 진로결정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진로장벽과 진로

스트레스를 낮추어줄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며 진로상담 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항공관련 전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설계 시,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해 특정대학의 항공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학의 항공관련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연구에서는 심층면접방식 및 타인평가방식 등의 활용을 통해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진로장벽과 진로스트레스로 제한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였으나 향후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하여 항공관련학과 전공자들의 진로발달지도 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1) 이현림·김순미·천미숙·최숙경,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1권 제4호, 2008, pp.59-80.
- 2) 전찬열,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0권 제1호, 2013, pp.1-14.
-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구: 전국연평균자료", 2013. www.kosis.kr
- 4) Swanson, J. L. & Daniels, K. K.,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1995.
- 5) Swanson, J. L. & Woitke, M. B.,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5, 1997, pp.443-462.
- 6) 손은령, "진로장벽 연구의 동향과 후속연구 과제", 학생생활연구: 서울대학교, 제28권, 2001, pp.81-97.
- 7) 김중운·박성실, "대학생의 정서지능,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4권 제4호, 2011, pp.209-229.
- 8) 김봉환·김계현,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7권 제1호, 1995, pp.20-43.
- 9) 배신영, "항공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학업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제23권 제3호, 2015, pp.94-104.
- 10) O'Leary, V. E., "Some Attitudinal Barriers to Occupational Aspirations in Wome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1, 1974, pp.809-826.
- 11) 손은령,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 12) 김은영,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1호, 2002, pp.219-240.
- 13) 이창식·김윤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중재효과: 남녀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2004, pp.183-213.
- 14) Brown & Birley, "Crises and Life Change and the Onset of Schizophrenia",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Vol.9, 1968, pp.203-214.
- 15) Hanisch, A. K., "Job Loss and Unemployment Research from 1994 to 1998: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55, 1999, pp.188-200.
- 16) 정의석·노안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제33권, 2001, pp.85-101.
- 17) 심지은·안하얀·김지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의 이해, 제32권 제1호, 2011, pp.103-118.
- 18) Hartman, B. W., Fuqua, D. R. & Hartman, P. T., "The Predictive Potential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in Identifying Chronic Indecis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31, 1983, pp.103-108.
- 19) Holland, J. L. & Holland, J. E., "Vocation

-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4, 1977, pp.404-414.
- 20) 박수길·이영희,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1호, 2002, pp.141-160.
- 21) 박선희·박현주,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6권 제1호, 2009, pp.67-81.
- 22) Astin, A. W., "Student Values: Knowing more about where we are today", *Bulleti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Higher Education*, Vol.36 No.9, pp.10-13.
- 23) Sakurako, C. M. "Anticipated Career Barrier of Male Japanese College Students in Japan.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2004.
- 24) 조영아, "비서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비서학논총*, 제16권 제1호, 2007, pp.107-127.
- 25) 이성식·정철영,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4호, 2007, pp.83-109.
- 26) Shuttleworth, C. L., "The Effects of Perceived Barriers on College Women's Occupational Choice(women),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1992.
- 27)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1996, pp.219-244.
- 28) 장순웅·김지태·김영준, "소프트볼 선수들의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52권 제1호, 2013, pp.325-337.
- 29) 김민정·김봉환, "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2007, pp.13-25.
- 30) 정은이,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 및 생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7, pp.143-162.